

서울 진적굿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 《대신말명거리》를 중심으로 -

이은우*

「차례」

1. 머리말: 진적굿의 좌표
2. 진적굿의 연행 과정
 - 2.1 자료 소개
 - 2.2 《대신말명》거리
 - 2.3 《제자 몸주 놀리기》
3. 진적굿과 바리공주의 상관성
 - 3.1 의대, 《도령돌기》
 - 3.2 바리공주 신화의 재현
4. 마무리

〈국문초록〉

진적굿은 천신(薦新)굿으로, 무당이 스스로를 위해 올리는 신굿 중 하나이며 매년 혹은 이태말미 삼년시력으로 올리는 정기제(定期際)이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굿의 규모와 제차가 축소되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적어 상대적으로 굿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서 연행하는 면이 강하다. 본고는 《대신말명》거리를 위시하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올리는 천신굿과 달리 진적굿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제차를 논의의 주대상으로 삼는다. 《대신말명》거리는 무업을 전수해준 선대 무당과 무조신 중 하나인 대신을 위한 제차이다.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정으로 각별히 모셔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지는 최영에 대한 신앙과 관련하여 진적굿을 해석하는 그간의 논의와 더불어, 서울굿에서 신격을 드러내는 수단인 의대와 바리공주를 모시는 특수한 무무(巫舞)인 도령돌기 등 실제 연행되는 굿의 의례를 근거로 서울 굿의 대표적인 무조신인 바리공주와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바리공주, 진적, 진적굿, 무조신, 대신말명, 도령돌기

1. 머리말 : 진적굿의 좌표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통해 무조신으로 좌정한 서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사무가이자 무속신화이다. 바리공주 신화는 그간 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 다양한 연구의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바리공주 신화 내용인 사설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진오귀굿의 《말미》거리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서울 진적굿에서도 바리공주 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진적굿에는 진오귀굿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바리공주 사설이 등장하지 않는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진적굿과 바리공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진적굿중 특히 《대신말명》거리에서는 바리공주의 복색인 의대뿐만이 아니라 만신들이 굿하는 과정 안에 바리공주의 삶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여 굿 속에 재현되는 바리공주 신화의 상관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진적굿은 무당이 자신이 모시는 신을 위해 벌이는 굿을 의미한다. 굿의 특성상 주로 강신무권에서 행해진다. 모든 굿은 무당이 주체가 되어 굿을 연행하지만, 굿을 의뢰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굿을 의뢰하는 주체가 개인일 때는 집굿이 되고, 마을이면 마을굿이 된다. 이 중 개인이 굿을 의뢰하지만 의뢰의 주체가 일반인이 아닌 무당일 경우는 신굿이라고 하여 따로 이 구별한다.

신굿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무업(巫業)을 기준으로 보면 무업을 시작하는 굿, 무업을 수행하면서 올리는 굿, 무업을 마감하는 굿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각기 내림굿, 진적굿, 하직굿이라 칭한다. 내림굿과 하직굿은 일회적임에 반해, 진적굿은 무업을 일구는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행한다. 또한 무당이 기일을 따로 정하여 무업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종신토록 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직굿을 올리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내림굿은 종교의 세계로 입문하는 시작으로의 의미가 강하다. 내림굿의 경우는 무당이 스스로 의뢰를 하고,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거리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림굿은 입무(入巫) 전에 겪는 무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목적이 부각되고,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접신이니만큼 등장하는 신격의 정체나 위계가 두서 없기 십상이다. 그래서 내림굿을 의뢰하는 입무자가 굿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굿을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신어머니가 되는 기존의 무당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입무자는 아직 무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미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굿을 의뢰하고 제반 경비와 수고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굿에 소요되는 시간과 장소, 제물, 전악 등의 규모와 짜임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행하는 굿은 신굿 중에서도 단연 진적굿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굿이 파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물질적 정성보다 편의를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굿 속에 익숙지 않아 지루해하는 제가집을 위해 반복되는 구절이나 거리를 삭제하거나, 유사한 거리를 통합하여 굿을 축소한다. 제가집이 흥미를 가질 법한 자극적인 굿거리나 공수는 확장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신굿은 무속 신앙의 신도이자 사제자인 무당의 굿이기 때문에 굿법에 따라 성실하고 온전하게 굿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마련이다. 서울 만신들이 주고 받는 옛말 중에서 “천금새남을 가겠느냐 만신의 진적을 가겠느냐”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많은 서울굿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한 새남굿보다도 만신의 진적굿이 먹을 것도 많고 실속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만큼 진적굿은 공을 많이 들이고, 원래의 모습과 의미가 보다 선명

하다는 가치를 가진다.

진적이라는 명칭은 제사나 잔치에서 임금 등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을 일컫는 진작(進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곳에서는 진적굿과는 별도로 진적이라는 제차가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진적은 가망거리와 불사거리 사이에 등장한다. 거리로서의 진적은 전악들이 서울곳에 쓰이는 장단을 고루 모아서 가장 느린 자진한닙에서부터 시작하여 염불,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의 순서로 연주한다. 그 동안 만신이 소지(燒紙)나 물을 둘러 굿당의 부정을 가시고 제가집과 굿상에 놓인 초와 향에 불을 켜고 술잔에 술을 따른 후 절을 올린다. 진적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자료에 따라 진적(進炙)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고기를 올린다’는 의미가 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술이나 고기는 굿상에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며, 두 용어 모두 이 같은 제물을 신에게 바쳐 공양한다는 진적굿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진적굿은 꽃맞이굿, 잎맞이굿, 단풍맞이굿, 햇곡맞이굿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어진다. 이같은 명칭은 굿의 사설에서도 “꽃맞이 정성이요 잎맞이 정성으로” 등으로 구현되어, 널리 통용되는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천신(薦新)굿이나 신차림굿 등의 이칭(異稱)도 존재하여 ‘햇밀천신굿’ 등의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진적굿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들은 진적굿의 목적과 굿이 열리는 시기를 전제한다. ‘새로운 공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긴 천신(薦新)이라는 단어가 굿의 목적을 대변하는 셈이다. 꽃과 잎이 돋는 봄이나, 햇밀이 나고 단풍이 드는 가을이 실제로 진적굿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시기이다. 특별히 무당이 신이 처음 내린 날이나, 무업을 시작한 날처럼 무속 신앙에 있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개별적 기념일에 굿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적굿은 봄이나 가을 중에 ‘생기복덕 있는 날을 가려’ 행하기 경우가 많다. 봄과 가을은 일기(日氣)적으로도 굿을 행하기 좋다. 추운 겨울을 죽은 듯이 지내고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 축원에 걸

맞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계절이 순환하듯 굿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행하여진 의례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꽃맞이·잎맞이, 단풍맞이가 내포하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집굿이나 마을굿에서 올리는 일반적인 재수굿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추업룡은 『조선 무속의 연구』 「가제(家祭)의 행사」라는 장에서 이들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이처럼 민간의 성소(聖所)에서 행하는 계절적 무제(巫祭)로, 대부분은 가무(家巫)로서의 주부가 주제(主祭)하거나 종종 직업무당을 불러서 행하는 대표적인 굿이 추제(秋祭)이며, 특히 10월을 상달(上月)이라 칭하는데 아마 그것은 원본적으로는 수확제로 생각된다. …… 경성 지방의 봄맞이 또는 꽃맞이·잎맞이, 평양 지방의 소위 꽃놀이 등은 오늘날 봄에 여성들의 유락(遊樂)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소위 천신(薦新) 행사에 속하는 것이며, 대부분 무당(巫堂)에서 행한다. …… 10월 개천절 무렵에 길일을 택하고 …… 준비해둔 햇곡물로 시루떡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신주(神酒)도 햇곡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진적굿은 굿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 의해 개인 굿(⇔마을굿)으로 산자(⇔망자)를 위한 굿 중에서도 기복을 위한 재수굿(⇔천도굿)에 속하며, 특히 무당이 굿을 의뢰하는 신굿(⇔집굿)으로 굿이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정기제(⇔임시제)라는 좌표를 갖는다.

진적굿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또 논의의 대부분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한 천신제라거나 내림굿을 재연함으로써 강신무의 영력을 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굿 등과 같이 진적굿 연행의 목적과 기능에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진적굿을 같은 신굿의 영역에 있는 내림굿과의 연장선에 두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만신의 무업 생애 전반을 신굿이라는 하나의 줄기를 통해 통시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만신 개인의 무업 전반을 신굿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모든 만신이라는 집합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만신 개인에게 내림굿이 무업을 시작하는 출발선점이고 진적굿을 통해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계승한다면, 그 출발선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소급시키면 결국 최초의 만신인 무조와 맞닿게 된다.

다수의 무조신이 존재하지만, 구약여행으로 저승을 체험하고 만신으로 좌정한 바리공주는 많은 지역권에서 모시고 있어 더욱 친숙한 존재이다. 특히 서울 무속권에서 바리공주는 각별하다. 바리공주는 진오기굿과 새남굿을 위시한 서울 무속권의 천도굿의 주체로 숭앙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울 무속권의 바리공주 신앙을 진적굿과 관련지어 무조신으로의 면모를 입증하고자 한다.

2. 진적굿의 연행 과정

2.1 자료 소개

굿의 제차는 ‘거리’라고 불리우는 단위로 구성된다. 서울굿은 특히나 ‘거리 거리 열두거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굿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거리의 조합을 갖는다. 또한 각 거리는 또다시 작은 거리들로 구성된다¹⁾.

1) 예컨대, 《청계배웅》이라는 하나의 거리는 다시 <청계대감>, <청계걸립> 등의 거리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범주에서 두루 사용되는 ‘거리’라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시 《청계배웅》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거리는 기호 << >>로 묶어 표기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거리는 기호 < >로 묶어 표기하도록 한다. 제차라는 용어는 작은거리와 큰거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신이 굿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다. 때문에 연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를 가급적 살리기 위해 거리라는 호칭을 함께 쓴다. 또한, 거리라는 호칭이 적용되지 않는 제차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예컨대 《회정맞이》나 《가망청배》 등의 거리는 범주상으로는 거리가 맞지만, 실제 연행현장에서는 ‘《회정맞이》 거리’나 ‘《가망청배》 거리’로 부르지 않고 ‘《회정맞이》’, ‘《가망청배》’라고 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차와 거리 등의 용어를 혼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진적구의 제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7	8	9
이영희 햇곡맞이 굿 ²⁾ 2001.12.9	김유감 진적굿 ³⁾ 2002.3.10	권옥남 진적굿 ⁴⁾ 2006.4.1	강민정 진적굿 2009.4.5	이상순 진적굿 2009.4.12	강민정 진적굿 2009.7.15	최금재 진적굿 2010.11.25	이상순 진적굿 2011.3.4	이영희 진적굿 2013.11.7
주당물림	물고받기	추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주당물림
부정가망 청배	주당물림	부정굿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불사거리 (친궁맞이)	부정거리	가망굿	가망	가망	가망	청계배웅	가망	가망
산거리	청계배웅	본향노랫 가락	청계배웅	청계배웅	청계배웅	대신말명	청계배웅	진적
상산거리 신장거리	진적	청계배웅	진적	진적	진적	가망	진적	대신말명
몸주	불사거리	대신몸주 놀이기	대신말명	대신말명	대신말명	진적	대신말명	친궁불사
대감 (윤경자)	제당맞이	진적	친궁불사	친궁불사	친궁불사	친궁불사	친궁불사	산신도당
가망	본향거리	친궁불사 맞이	제당맞이	제당맞이	제당맞이	산신도당	제당맞이	대안주
조상	상산거리	제당맞이	본향	산거리 산신도당	산신도당	본향	산거리 산신도당	신장
안당제석	전안신장 거리	산신도당 거리	산신도당	본향-가망	본향	대안주	본향-가망	대감
호구	군웅대감 거리	본향바라 기 가망해치 기	대안주	대안주	대안주	조상	대안주	대신말명 (제자몸주 놀이기)
성주	조상굿	대안주드 리기	대주몸주 놀이기	대감	대주몸주 놀이기	안당제석	조상	안당제석
대신 (김계수)	제석거리	대감	조상	조상	조상	성주	대감	성주
창부 (최은정)	성주거리	조상	안당제석	안당제석	안당제석	창부	대신말명	본향가망- 대신

신령놀리기	귀면거리	안당제석	성주	성주	성주	뒷전	안당제석	창부 (줄타기)
뒷전	뒷전	성주국	창부	제자몸주 놀리기	창부		성주	제면
	배웅거리	애동기자 몸주놀리 기	계면	창부	계면		창부	뒷전
	소지	마당거리	뒷전	제자몸주 놀리기	뒷전		작두신령	
	제물정리	회정맞이	회정맞이	계면	회정맞이		계면	
				뒷전			뒷전	
				회정맞이			회정맞이	

자료 1은 홍태한이 제시한 진적곳의 거리 구성이다.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 진적곳의 기능을 만신의 무업을 원본사고와 관련지어 만신의 영력 강화와 한풀이 신명풀이, 신도와와의 관계 재정립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2는 곳상에 제물로 차려지는 음식을 소개하는 자료이지만, 진적곳을 다루고 있고 사진과 함께 당시 행해진 제차를 소개해서 곳의 실상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김유감은 새남곳으로 중요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만신이었고, 자료 조사의 주체가 문화재연구소였다. 때문에 곳을 시작하기 전 물고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등 촬영과 조사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 《대신말명》거리를 《진적》거리에 포함시켜서 기술하거나, 《가망청배》거리를 따로 거리 설정을 하지 않는 등 제차 정리를 하는데 있어 몇몇

- 2) 홍태한, 『서울곳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년. 221쪽
- 3) 국립문화재연구소 편(글: 주영하, 방인아, 최진아), 『巫·곳과 음식 1 - 김유감 진적곳·오수복 진적곳·서울새남곳』,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4) 김현선, 『서울곳, 거리 거리 열두거리 연구』, 민속원, 2011년, 139쪽. 2006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동월산리 권옥남 진적곳.

오류가 간혹 보인다.

자료 3은 진적굿을 본격적인 대상으로 주목한 첫 논의이기도 하다. 김헌선은 진적굿의 독특한 제차인 《제당맞이》와 《회정맞이》를 중심으로 진적굿의 기능과 의의를 도출하고, 서울굿 거리 구성의 핵심 원리가 진적굿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료로 제시된 권옥남의 진적굿의 제차도 소상하게 제시하였다.

자료 4~9는 본 연구자가 직접 참관한 자료이다. 자료 4,6과 자료 5,8은 같은 만신의 자료여서 굿의 연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누락이나 변동 등의 가변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상순은 현재 서울새남굿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이다. 가지고 있는 문서와 기예 모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굿 만신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민정은 이상순의 신딸이다. 때문에 서로가 가진 문서가 겹칠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연행 여건상 하나의 굿을 혼자서 모두 연행할 수 없고, 때문에 몇몇 거리는 청송만신이 놀게 되는데, 자신의 굿일 때와 다른 만신의 굿일 때 모두를 관찰할 수 있어서 한 만신의 진적굿 관련 문서를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재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자료 7은 문서가 비교적 깊지 않은 만신의 자료여서 굿을 깊고 오래 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탈락하는 거리와 그럼에도 유지되는 거리를 살피며 거리 구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자료 9는 자료 1과 동일한 만신의 자료이다. 이영희 만신도 서울굿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명무(名巫)이다. 직접 참관하지 못했던 자료 1과 동일한 만신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1의 실상을 재구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서 연행된다는 굿의 특성상 때문에 자료에 접근이 어렵고, 연행자에 따라 용어나 거리 운영 방식이 다르고, 거기에 더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개한 연구자에 따라 그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자료의 거리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천신굿과는 구별되는 진적굿만의 특수한 제차가 눈에 들어온다.

《청계배웅》, 《대신말명(대신거리, 만신말명, 대신말명)》, 《제당맞이》, 《회정맞이》, 《제자 몸주 놀리기》 등의 거리가 추가된 것이 그것이다. 이들 다섯 개의 굿거리 중 《청계배웅》, 《제당맞이》, 《회정맞이》는 신굿의 준비과정인 상산에 물고를 받는 절차와 관련된다. 《대신말명》, 《제자 몸주 놀리기》는 서울굿에서 무조신으로 관념하는 《대신》을 모시는 제차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진적굿의 특수 제차 중 무조신양과 관련된 《대신말명》, 《제자 몸주 놀리기》 거리를 주 대상으로, 또 다른 무조신인 바리공주 신앙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한다.

2.2 《대신말명》 거리

《대신말명》거리는 《만신말명》거리, 《대신》거리, 《몸주놀리기》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운다. 대신은 일반적으로 무조신을 뜻한다. 대신 할아버지라는 호칭도 있어서 남성신격도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신격이 우세한 무교巫敎의 특징상 대개는 여성인 대신할머니로 모셔진다. 말명의 어원은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을 신격화하여 무당의 조상신이 된 것으로 이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명은 조상신으로 이해된다. 조선말기에 쓰여진 책자인 『무당내력』⁵⁾에도 큰 책자와 작은 책자 모두에서 소매가 넓은 황색 활옷을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든 모습으로 《만신말명》거리로 제시하고 작은 책자에는 “무녀는 만신으로 불려지는데 (혹은 萬身 또는 滿神이라고도 한다) 어느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대저 이 춤은 무녀의 연원을 말해주는 것이다.”, 큰 책자에는 “무녀의 연원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실려 있다.⁶⁾ 《대신말명》거리가 일찍부터 서울굿의 한 제차로 존재했고, 오늘날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의 정체나, 신복과 무구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서울대학교규장각 서대석 해제, 『무당내력』, 민속원, 2005.

6) 전계서, 17쪽, 서대석 해제 인용.

2.2.1 칭배 신격

자료8의 《대신말명》거리를 예로 구체적인 연행 양상을 살핀다. 이날 곳에서는 ‘대신할머니, 작두대신할머니, 몸주대신할머니,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열두대신할머니,’ ‘이북할머니(명씨할머니), 오도바이 할머니, 영득이네, 짱구박수 할아버지, 도서방할머니, 신박수 할아버지, 아리랑할머니, 종암동 이봉순, 김점석씨, 성북동할머니, 분홍저고리, 고모네(기명집), 상진엄마, 노들순자, 상임이, 수유동 돼지엄마, 유괘이 할머니’ 등이 순서대로 놀아졌다.

이들은 모두 대신, 대신할머니라는 범주에서 모셔지지만, 이들은 ‘대신할머니, 작두대신할머니, 몸주대신할머니,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열두대신할머니’와 ‘이북할머니’ 이하 ‘유괘이 할머니’에 이르는 신격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서울 만신이 《대신말명》거리에서 두루 모시는 보편적인 무조신격이다. 후자는 생전에 이상순 만신과 무업으로 인연을 맺은 망자들의 이름 혹은 무업에서 쓰던 별호로, 이상순 만신의 개인적인 범주의 무조신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곳은 일반적으로 서열이 높거나 포괄적인 범주를 가진 신격이 먼저 놀아진다. 《대신말명》거리에서도 ‘대신할머니, 작두대신할머니, 몸주대신할머니,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열두대신할머니’가 먼저 호명되었다. 몸주대신할머니는 대신할머니 중에서도 만신의 몸에 내려, 각별히 모셔지는 몸주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상순은 몸주신으로 대신할머니와 작두대신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호명되었다. 무신의 범주는 때로는 명확하지 않고 중층적이어서, 대신할머니, 몸주대신할머니, 작두대신할머니 등의 신격이 같은 층위에서 동시에 모셔지기도 한다. 천하대신, 지하대신, 벼락대신 등은 대신할머니의 범주에 속하는 세부적인 신격이다. 이렇게 다양한 대신할머니의 신격을 종합하여 열두대신할머니로 지칭한다. 여기까지 호명된 신격은 만신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대신할머니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신어머니와 신아버지, 스승과 선배

만신들과, 함께 굿을 하던 전악들의 혼령들도 무조신의 범주에서 함께 놀려진다는 점이 독특하다. 무조신의 범주가 보편적인 대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무업을 이끌어준 개별 망자의 혼령에까지 이른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2.2.2 공수

《대신말명》 거리의 공수는 비단 굿을 올리는 본인에게 관련된 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적굿에 모인 청송만신, 신딸, 단골, 악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덕담과 조언을 건넨다. 단골들이 만신에게 무꾸리나 굿을 의뢰하러 찾으면 돈이 들지만, 이날 굿구경 온 단골들에게는 반대로 만신이 이들을 배부르고 흥겹게 대접하고 영험한 공수를 내려준다. 자료9에서 이영희는 진적굿을 하는 째째 단골들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해주기도 하고, 신딸들에게 자신이 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채나 모아두었던 옷감을 내주었다. 이상순의 진적굿에서는 천을 따로 준비했다가 굿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골고루 끊어서 끈침이라 하여 나눠준 경우도 있었다. 『조선무속의 연구』 7)에 천신굿을 소개하면서 “‘군침’이라는 흰 목면을 준비했다가 주무가 한 발 남짓 잘라서 굿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라는 기록이 바로 이것을 이른다. 현재 다른 천신굿에서는 끈침을 나누는 과정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진적굿에서는 그 모습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타굿에 비해 진적굿의 변형이 비교적 적고 원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적굿이 진행되는 굿판에는 만신의 단골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굿에서는 ‘단골 갈림은 해골 갈림’이라 하여 단골과 만신과의 인연은 죽을 때까지 지속될 만큼 길고 깊은 것이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때문에 오랜 단골일수록 《대신말명》거리에서 개인적으로 모셔지는 신격의 인

7) 추업룡·적송지성,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 138쪽.

물들과도 친분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당일 굿판에는 생전 새남굿 문화재 보유자였던 김유감(유괘이 할머니)의 신아들인 이○○나, 생전 이름난 서울굿 약사였던 김점석(김점석씨)의 친아들이며 본인도 약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 등이 동석했다. 이들은 본인의 신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강신하여 내리는 공수이니만큼 응당 주의 깊고 엄숙하게 경청하였고, 개인적인 인연을 공유한 만큼 공수의 내용도 한결 친밀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 망자의 혼령을 신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진적굿이 진행되는 굿판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의 무조신이 보편적인 무조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중 있고 엄숙하게 모셔질 수 있다.

2.2.3 의대

다양한 범주의 신격이 등장하니만큼 의대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무당내력』에 그려진 것처럼, 홍치마에, 은하몽두리라 하여 꽃분홍색 안감을 덧댄 노란색의 소매가 넓은 활옷을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드는데 이를 대신(할머니) 의대라고 한다. 특기할 점은 은하몽두리는 바리공주의대로 쓰이는 복식과 같다는 점이다.

이를 기본으로, 죽은 만신들이 생전에 쓰던 신복이나 그들을 위해 따로 지은 의대를 사용하는데, 여러 겹 겹쳐 입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손에 들고 논다. 《대신말명》 거리이니만큼 대신의대를 입지만, 본인의 대신의대를 입고, 그 위에 대신으로 모셔지는 세부 신격을 몸에 신을 때마다 그들을 위한 대신의대도 겹쳐 입기 때문에 예닐곱벌의 은하몽두리를 겹겹이 둘러 입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은하몽두리 몇 벌은 팔에 걸친 채 놀게 된다. 생전에 만신이었던 대신말명은 신복인 은하몽두리를 준비하여 놀지만, 호명된 대신말명 신격 중 만신이 아니었던 혼령에게는 조상의대와 같은 물색이나 분홍색 한복을 준비한다.

종합하면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의 특성이 그러하듯, 신을 위한 의대

와 사람을 위한 의대가 같이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전에 무업과 관련된 일을 했더라도, 만신이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신격을 다시 세분하고 만신이었던 신격에게는 바리공주 의대이기도 한 은하몽두리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2.2.4 거리 설정의 타당성

《대신말명》 거리는 《진적》거리 뒤에 진행된다. 거리가 바뀌는 것은 모셔지는 신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신격의 교체는 연행하는 만신이나 제상, 의복 등의 교체도 따르기 때문에 거리와 거리 사이에는 이를 분절하는 휴지가 생긴다. 그러나 《진적》거리에서 《대신말명》거리로 이어지는 휴지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달리 짧다. 자료 2번 김유감 진적 곳에서 《대신말명》거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진적》거리에 포함시켜서 서술한 것도 휴지 없이 연이어 곳이 진행되어서일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신말명》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격 중 만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인물의 영혼을 보편적인 신격의 범주에서 함께 모시면서 신격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독립된 온전한 곳거리로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신말명》 거리에서는 무무(巫舞)에 곳거리 장단과 허튼타령 장단이 쓰이고, 대신할머니타령, 떡타령, 창부타령 등의 타령과 노랫가락이 불리워졌다. 서울곳의 거의 모든 장단과 춤이 두루 연행된 셈이다.

휴지 없이 《진적》거리에서 절을 올리자마자 바로 펼쩍 일어나 박수를 치며 몽두리 가져오라고 이르며 《대신말명》거리를 시작하는 도입부는 진적곳의 중요한 특성에 기인한다. 내림곳에서 입무하려는 예비 만신이 신이 내려 당악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며 펼쩍 펼쩍 뛰어오르면 내림곳을 이끄는 만신이 어느 신이 드셨냐고 묻는다. 이때 자신에 몸에 실린 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처음으로 공수를 내리는 것을 ‘말문이 열린다’거나 ‘박수를 쳤다’라는 관용구로 표현한다. 분절 없이 전거리에 이어서 진행하

는 《대신말명》 거리의 도입부는 박수를 치며 말문을 열린 내림곳의 경험을 재연하는 의미도 있다.

신격이 높거나 비중이 클수록 음식과 상이 단독으로 준비되고, 신격이 낮거나 비중이 작을수록 따로 상을 두지 않고 시루나 특정 음식 일부로 축소된다. 대신거리에는 대신상이 동근상에 따로 차려진다. 소찬(素饌), 육찬(肉饌) 등을 가리지 않고 곳을 위해 준비한 모든 음식을 올리고, 《대신말명》거리가 끝난 후에 이 상을 허물어서 식사 전에 따로 나누어 먹는다. 이를 겨누리 새참, 겨느리 새참 등으로 따로 칭하기도 한다. 서울 곳에서는 ‘천금새남을 가려느냐 만신의 진적을 가려느냐?’라는 관용구가 있다. 새남곳은 서울곳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곳이다. 그런 새남곳보다 만신의 진적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더 알차고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수사어문문이다. 술이나 떡 등의 제물은 12개가 준비되는데 ‘열두대신할머니’라고 해서 대신할머니의 신격을 열두 명으로 간주하는 관념에서 비롯한다. 눈에 띄는 특징은 다른 거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국수를 준비한다는 점이다. 12그릇을 준비하거나 한 그릇에 12개의 숟가락을 꽂아서 진설한다. 국수는 대표적인 잔치 음식이다. 보편적으로는 진적이 갖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경사스러운 잔치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도 하며, 개별적으로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대신말명》거리 신격의 위상을 함축하고 있기도 한 셈이다.

이렇듯 《대신말명》거리는 제차의 운영에 서울곳의 대표적인 무악(巫樂)과 무무(巫舞)가 두루 쓰이고, 《대신말명》거리를 위한 곳상이 따로 준비되며, 진적곳의 전반부(前半部)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신격을 놀린다. 이렇듯 곳의 구성이나 비중 면에서 독립된 주요한 거리로 보는데 손색이 없다 하겠다. 오히려 신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존재가 만신이라는 근본적 전제를 잘 드러내주는 제차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2.3 《제자 몸주 놀리기》

진적굿을 올리는 만신의 제자들이 대신말명을 위시한 몸주대신을 놀리는 거리이다. 강신무에게 몸주신은 영력의 주체가 되는 신으로, 굿을 할 때 잠깐씩 실려서 공수를 주는 신과는 달리 무당이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⁸⁾ 때문에 몸주신은 만신이 내림굿을 하고 무업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함께한 각별한 대상이다. 내림굿을 한 날이 만신의 삶을 시작한 생일이라면, 진적굿은 만신으로 살면서 별이는 생일 기념 잔치나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몸주신은 신격의 위계를 떠나 각별하게 모셔질 수밖에 없다.

진적굿은 만신이 별이는 큰 잔치이다. 때문에 진적굿에는 신어머니와 신딸을 위시한 관련된 만신이 두루 참여하기 마련이다. 굿을 잘하는 실력 있는 만신이라면야 따로 거리를 내어 주고 담당하게 하지만, 아직 문서가 깊지 않은 애동기자라면 굿판에서 설 기회가 없다. 그러나 《제자 몸주 놀리기》 거리에서는 예외이다. 이럴 때 개인적이고 다양한 몸주신을 대표하는 신격도 앞서 다루었던 대신말명, 혹은 대신할머니이다. 《몸주 놀리기》 거리에서는 주로 신어머니의 진적굿에 온 신딸들이 굿판에 선다. 진적굿을 하는 만신과 비등하거나 높은 서열을 가진 만신은 이 자리에서 지 않는다. 무복으로는 《대신말명》거리와 같은 은하몽두리를 입는다. 당악에 맞춰 도무한 후 천하대신할머니, 지하대신할머니, 벼락대신할머니 등을 호명하고 짧게 몇 마디 축원을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서나 기예가 부족한 대신 당악에 맞추어 펄쩍펄쩍 뛰는 무무(巫舞)로 신명을 푼다. 2013년에 행해진 이영희의 진적굿에서 애동기자가 쑥스럽고 자신이 없어 사양하자, 이영희 만신과, 그날 굿의 많은 거리를 도맡았던 신딸 윤경자 만신이 나서서 ‘안 그러면 울기(鬱氣)나서 안된다’며 ‘몽두리만 입고 뛰라’고 강권해서 굿판에 세우기도 하였다. ‘나는 옛날에 신아빠

8) 변지선, ‘몸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2010.

지 따라가서 여기에 가래뚝이 올라서 고름이 나는데도 다리를 이렇게 뺨치고도 뛰었다며 애동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진적굿이 아닌 다른 굿, 특히 마을굿에 등장하는 《무감서기》와도 기능 면에서 함께 견줄 수 있다. 제가집 가족이나 구경꾼 등 무당이 아닌 다른 참여자도 굿판으로 끌어들여 몸주를 놀리게 함으로써 굿에 참여시키고 화합하기 때문이다. 거리의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거리의 운영에는 몇 가지 차이를 갖는다. 먼저 진적굿에서의 몸주놀리기 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만신인 애동기자를 중심으로 거리를 연행한다. 둘째, 무감을 설 때는 주로 쾌자 형태의 의대를 입는다. 이는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라 입고 벗기 쉬우며, 이것은 유독 흥을 돋우고 친숙한 신격인 대감이나 신장과 관련된 의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적굿에서는 흥치마에 은하몽두리를 갖춰 입는다. 셋째, 무감을 설 때는 우루루 여러 명이 함께 굿판에 나서 타령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거나, 당악 장단에 맞춰 뛰며 춤을 춘다. 그러나 진적굿의 《제자 몸주놀리기》에서는 여러 명이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한번에 한 명씩만 굿판에 나선다. 그리고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거성이나 들어숙배 나숙배 등의 무무로 청신하여 신을 몸에 신고 신격을 호명하고 공수를 내린다. 공수의 내용이나 기에는 비록 미숙하지만, 무교의 사제자로서 《대신말명》 거리를 연행하는 셈이다.

3. 진적굿과 바리공주와의 상관성

서울굿에서 무조신으로 섬겨지는 가장 중요한 신격 중 하나가 바로 바리공주이다. 바리공주는 구약여행을 통해 죽은 부모를 살리고 스스로 만신이 되겠다고 청하고 죽은 이를 천도하는 진오기굿을 주관한다. 만신은 바리공주 의대를 갖춰 입고 《말미》거리에서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본풀이로 구송하고, 이후 도령거리를 통해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의례로 재연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바리공주의 무조

신으로의 위상은 인정하면서도, 진오기굿과 새남굿같은 망자를 천도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굿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바리공주가 갖는 의의는 명확히 다른 바가 없다. 그런데 진적굿, 특히 《대신말명》거리가 바리공주의 무조신으로의 면모가 드러나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3.1 바리공주 의대, 《도령돌기》

서울굿에서 신복은 상당히 중요하다. 신복은 강신하는 신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신하는 신이 바뀌면 신복도 바뀐다. 먼저 바리공주의 의대를 살펴본다. 바리공주 무가는 일찍이 『조선 무속의 연구』에서 무조전설로 채록된 바 있다. 1937년 경성에서 배경재가 구술한 바리공주 사설이 그것인데, 현재 전하는 바리공주 무가 중 가장 오래된 자료이고, 서울 무속권의 자료이기도 하다.

만신의 인위왕이 되겟나이다 치여다 백재일은 산 이 천도하고 네려다 유재일은 죽은 이 천도하고 치여다 원증입 증수조고리 입단치마 수당혜 은아몽두리 칠쇠방울 너무나 흥띠 선대 한림, 만신의 몸주되다⁹⁾

현 새남굿 무형문화재인 이상순의 《말미》 문서에도 바리공주의 의대를 묘사한 부분이 자세히 구술된다.

만신의 몸주로는 큰머리 단장에 은하몽두리 뽕으나 대띠 좁으나 흥띠 입단치마 수저고리 수당혜 화하복색 칠쇠방울 선대한림부채 은치어대 백목채요 내리밀어 유일채요¹⁰⁾

두 자료 모두 바리공주의 복식과 무구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9) 적송지성, 추엽룡 저, 『조선민속의 연구』 상, 심우성 역, 동문선, 1991년, 44쪽.

10) 이상순, 『서울새남굿 신가집』, 보고사, 2011. 310쪽.

이에 준한 복장으로 바리공주의 《말미》거리나 《도령돌기》가 행해진다. 서울굿에서는 바리공주의 의대를 완전히 차려입은 것을 ‘바리공주 성적(成赤)을 하다’라고 따로 일컫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리공주의 의대는 서울굿의 많은 무복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 《대신말명》거리와 몸주놀리기 거리의 복색은 홍치마 위에 노란색깔의 은하몽두리를 입고, 무구로 방울과 부채를 든다. 이는 《말미》나 《도령돌기》의 의대보다는 간소하지만, 바리공주의 의대와 같은 것이다.

위의 바리공주 의대를 설명한 인용문에서도 바리공주의 의대를 소개하기 전후에 ‘만신의 몸주’라는 신직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만신의 몸주, 즉 무조신으로서의 신격의 선언이 갖춰야 할 의대를 묘사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서울굿의 신격이 의대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복을 지을 때는 각별한 정성을 들인다. 은하몽두리에는 꽃분홍색의 안감을 덧대는데, 옷을 두 벌 짓는 공을 들여 만들어야 정성이 깃들고 색깔이 곱게 잘 나온다고 말한다. 의대를 입는 데도 격이 있어서 특정 의대는 성 안에 있는 무당만 입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만신이 입으면 회초리를 맞았다고도 한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신복은 따로 신복 상자에 넣어 잘 보관하고 진적날에는 모든 신복 상자를 열어 돌려주고 다시 보관한다. 신복은 낡거나 더러워지면 빨지 않고 태우고 새로 다시 짓는다. 옷으로 존재를 대표하는 것은 신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가족 중 망자가 탈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망자의 옷을 가져다가 말명상자를 만들어두고 곳에서 이 옷을 가지고 돌려주기도 한다. 서울굿의 이름 높은 만신 중 한 명인 왕십리 얘기씨당주 김옥렴 만신도 “신복은 빨지 않고, 말명동구리(상자)에 들어있는 신복이나 방울들은 삼년시력 때 갈아준다”라고 밝힌바 있다.¹¹⁾ 삼년시력은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고 해서 진적굿을 올리는 때를 일컫는 무가 사설이다. 이렇듯 신복은 서울굿을 이해하는데

11) 2009년 6월 29일, 왕십리 얘기씨당 자택 인터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신말명》 거리와 《제자 몸주 놀리기》 거리에서 바리공주 의대와 같은 은하몽두리를 입는다는 것은 대신 신격의 근간에 바리공주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근거이다.

바리공주가 태어나서 고난을 겪고 신으로 좌정하기 까지의 내력은 《말미》거리에서 신화로 구송되고, 《도령돌기》를 통해 의례로 재연된다. 진오기굿에서 《도령돌기》는 대설문을 중심으로 도는 밖도령과 대상을 중심으로 도는 안도령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각각 손도령, 나비도령, 부채도령, 칼도령으로 구성된다. 이상순은 손도령은 바리공주가 닢을 받쳐 안고 도는 형상을 보여주며, 나비도령은 바리공주가 구름을 헤치며 나아가는 형상을, 부채도령은 부채로 머리에 망자의 닢을 떠서 감싸 안아도는 형상을, 칼도령은 열두지옥의 문을 여는 형상을 보여주는 춤이라고 설명하였다. 안도령과 밖도령은 저승을 천도하는 공간 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손도령, 나비도령, 부채도령, 칼도령은 바리공주가 천도하는 모습을 춤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도령돌기》는 바리공주의 저승 여정을 무무라는 행위로 재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굿에서는 신화와 의례가 결합되어 바리공주라는 신격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천도의 주체자라는 신격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서울굿에서는 《도령돌기》를 통해 천도 주체가 곧 ‘바리공주’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¹²⁾ 그런데 이 《도령돌기》는 진적굿에서도 등장해서 주목을 요한다. <제당도령돌기>라는 거리가 그것인데, 《제당맞이》 제차에서 연행된다. 제당상을 중심으로 소매를 풀었다 감으면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도령돌기》를 연행한다. 김현선은 <제당도령돌기>를 바리공주의 손도령과 같은 동작임을 지적하면서 복색이 다른 것이 차이점이며, 굿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점차로 깨져 나가면서 현재는 이러한 <제당도령돌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³⁾

12) 김형근, 『서울 새남굿 도령돌기의 의미와 위상』, 『한국무속학』 24호, 2012. 105쪽.

13) 김현선, 전거서, 145쪽.

《제당맞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산돌기라는 절차를 알아야 한다. 진적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무구를 손질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 외에 특별히 공을 들여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최영장군이 모셔져 있는 덕물산에 기도를 다녀오는 것이 그것이다. 굿을 하기 전에 덕물산에 다녀오는 행위를 특별히 ‘삼산돌기’ 혹은 ‘상산돌기’, ‘상산에 물고를 받는다’ 등으로 부른다. 삼산은 실록을 위시한 고서에도 용례를 흔히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신신앙이 발달하여 특히 몇몇 산을 신성하게 여겨 숭앙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에서도 “국무당(國巫堂)과 감악산(紺岳山)·덕적산(德積山)·목멩산(木覓山) 삼성(三聖)에 기양제(祈禳祭)를 행하였다.¹⁴⁾”는 기록이 있다. 덕적산은 덕물산의 다른 이름으로 국조보감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도 이곳에서 기은제를 지냈다고 한다. 장순범은 삼산돌기를 세 곳의 산으로 파악하고 “입무하려는 자의 본향산과 배우자 본향산, 스승의 본향산을 순례하거나 명산 중에서 세 곳을 정하여 순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산을 도는 것이 아니라 입무하는 자의 신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¹⁵⁾”라고 풀이하였다. ‘입무하려는 자’라는 지칭은 내림굿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림굿은 입무자가 굿을 수혜를 누리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굿을 집전하는 주체가 되는 신어머니, 곧 스승의 본향산을 함께 도는 과정이 바탕이 될 수 있다. 만신 중 진적을 위시해 중요한 굿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본향과 관련된 산을 다녀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¹⁶⁾ 명산 중에서도 무산(巫山)으로 이름 높은 덕물산을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덕물산은 상산(上山)으로도 불리운다. 만신들이 으뜸으로 꼽는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4) 태종 16년 병신(1416, 영락 14) 5월25일 병진

15) 장순범, 『삼산돌기』,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9.

16) 강민정 만신은 2009년 진적을 준비하면서 고향인 진주의 명산을 다녀왔다고 구술하였다.

신의 신산은 못갔지만 오늘은 선바위 반산을 들어다가 고향산천 팔도명산을 들어다가 진적맞이는 회적자랑을 대우하니 반거라 즐거라 각국임신 만신말명 대한성수 좋아라 한 거리 문안에 두 거리 진적이요

-강민정 만신 진적굿, 2009년 4월 5일, 자택 전안, 부정거리 중 (이상순)

산을 갔다왔어요 옛날에는 산갔다 왔다고 그러면 선바위 갔다오는게 산 갔다오는거고 그전에는 개성 덕물산 갔다오는게 산 갔다온거라.

-강민정 만신 햇밀천신 신차림 진적굿, 2009년 7월 15일, 이상순 전안, 이상순 인터뷰 중

산에 친산을 돌아다가 사위삼당을 돌아다가 들어숙배는 내숙배에 검은산 둘러치고 백두산 옆에 끼고 석바위 석다듬고 금잔디 내리밟어 오늘은 신산은 못갔어도 삼당사연은 제당을 들어다가 선바위 신령님 모셔다가 이씨에 신어머니 전안에 친신령 하위하자는 정성이고 만신령 하위하는 정성이고

-강민정 만신 햇밀천신 신차림 진적굿, 2009년 7월 15일, 이상순 전안, 부정거리 중 (이길수)

오늘은 칠용상집에 금잔디 들여밟고 은잔디 내밟아서 검은쌀은 불리치고 백두산 옆에 기고 임진강 대동수에 친의 친산은 길이 멀어 못가고 선바위 국사당에 놀구나서 등대하여 사해삼당 들어다가 궁미제당 들어다가 안산 여덟을 밟고요 밧산은 열시위를 대령하고 오늘은 선덕물 후덕물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님 모셔다가 진적맞이 회적자랑 내위하니 즐거라 반거라 받으시고

-이상순 만신 진적굿, 2009년 4월 12일, 자택 전안, 부정거리 중 (이길수)

진적굿을 하려면 개성 덕물산에 있는 최영 장군의 당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인왕산 선바위에 있는 국사당을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목덕산에

있던 국사당을 옮겨온 인왕산 국사당에 들러 정성을 들이고 당주에게 흰 종이에 도장을 받아온다. 이런 행위를 ‘상산에 물고(를) 받다’라고 한다. 물고지(紙)는 접어서 진적굿의 무구로 사용한다.

축신제(祝神祭)의 목적은 무업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무의 영력을 주기적으로 강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다.¹⁷⁾ 흔히들 접신하고 내림굿으로 입무한 직후가 영력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 영험을 유지하여 무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신이 내려 내림굿을 했을 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재연하는 것이 진적굿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된다.

자료 2에서 김유감은 신촌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개성 덕물산에 직접 가서 물고를 받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3일 이상이 소요되는 당시의 물고 받기 과정 때문에 지금보다 진적굿의 의미가 더 컸다고 여겼다. 김유감은 자료 2의 진적굿을 하기 전 날 덕물산을 대신해서 인왕산에서 물고를 받아왔지만, 국사당으로 향하는 인왕산의 가파른 길을 외손자 등에 업혀서야 오를 수 있었다. 개성 덕물산을 다녀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바위 국사당에서 물고를 받는 것도 수고와 정성이 담보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고를 받기 위해 제상에 올리는 전물도 모두 미리 준비해서 국사당에 배설하였고, 특히나 밥은 쌀을 준비해서 국사당에서 갓 지은 밥을 올렸다.¹⁸⁾

만신이 제물을 준비해서 상산에 물고를 받으러 다녀오는 고된 여정을 도령돌기라는 무무(巫舞)로 구현하는 것은 바리공주의 여정을 《도령돌기》로 표현하는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앞서 만신말명 거리가 그랬듯이, 서울굿은 하나의 거리 안에 상위신부터 하위신까지 집합의 개념으로 신을 모시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말미》거리와 《도령돌기》는 그야말로 바리공주라는 신격 한 명만으로 거리를 구성한다. 그만큼 《말미》와 《도령돌기》는 바리공주라는 뚜렷한 주체를 중심으로, 신격과

17)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372쪽.

1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글: 주영하, 방인아, 최진아), 『김유감 진적굿』, 『巫·굿과 음식

1 - 김유감 진적굿·오수복 진적굿·서울새남굿』,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44쪽.

거리가 불가분의 관계에서 연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당도령돌기>는 진적곳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상산돌기지만, 이를 주관하는 신격은 바리공주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왕복한다. 《말미》거리에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을 다녀오고, 《도령돌기》에서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 저승을 다녀온다. 그러나 결국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은 하나이다. 이 길을 오가는 여정은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구약여행이 되고 때로는 천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진적곳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만신은 《도령돌기》를 통해 천도곳을 할 때와 진적곳을 할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바리공주의 궤적을 좇게 된다. 그런데 천도곳을 연행할 때 따르는 바리공주의 여정은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길이지만, 진적곳을 연행할 때 따르는 바리공주의 여정은 구약여행의 그것이다. 결국 <제당도령돌기>는 최초의 만신인 바리공주가 고난을 겪으며 구약여행을 다녀온 길을 지금의 만신이 바리공주가 되어 다시금 체험하고 실천하는 숭고한 의례라고 볼 수 있다.

3.2 바리공주 신화의 재현

바리공주는 저승 여행을 통해 부모를 살리고 부모로부터 무조의 신직을 받는다. 김헌선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조의 신직을 물려받는 것을 초공본풀이와 바리공주의 특성으로 지적한 바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바리공주는 자신이 구약여행을 하면서 만든 인연인 남편 무장승과 자식들도 모두 신직을 받게 한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럿 모두가 함께 신으로 좌정하는 것도 바리공주를 위시한 우리나라 무조신화의 독특한 신관이다.

《대신말뎡》거리에서 만신은 자신이 무업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선대의 만신과 악사를 신격으로 청배한다. 죽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19) 김헌선, 『서울 진오기곳-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2011년, 17쪽.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신의 몸에 싣고 굿판으로 불러내어 비록 잠시나마 생전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대화하고 축원하는 것은 망자를 살리는 재생으로 기능한다. 물론 이것은 굿이 진적굿이 아니어도 대부분 굿에서 재현되는 과정으로 망자와의 마지막 이별을 위해 산자에게 기회를 주는 일종의 종교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적굿이 지향하는 재생은 차원이 다르다. ‘만신’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죽은 혼령이라면 굿을 통해 만신이라는 사제의 영력으로 만신의 몸을 빌어 잠시나마 재생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조상 망자의 자격으로 《조상》 거리에서 놀아진다. 그러나 만신의 넋을 위시하여 무업으로 엮인 넋이라면 대신이라는 무조신격으로 《대신말명》 거리에서 놀아진다는 큰 차이가 있다. 망자의 혼령과 무조신과의 차이는 의례의 여러 요소에서 발견된다. 등장하는 거리가 다르고, 그들이 만신의 몸을 통해 전하는 말은 각기 ‘영실’²⁰⁾과 ‘공수’로 구분하여 다르게 지칭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상거리는 굿을 연행하는 만신과 굿에 모셔지는 혼령 모두 평복에 준하는 옷을 입지만, 《대신말명》거리는 집전하는 만신과 모셔지는 혼령 모두 은하몽두리라는 신복을 입는다.

내림굿을 하고 만신이 되어 무업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 선택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강신무가 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신병을 겪고 걸립을 통해 무구와 단골을 마련하고 내림굿을 통해서 이전과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교(巫敎)의 사제라는 고된 삶이란 뜻도 있지만, 그야말로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의미에서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 강신무의 입무과정에서 무병앓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원인도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의 고통이 내림굿을 치르고 만신이 되면서 치유된다. 그래서 만신은 자신을 만신의 길로 이끌어준 선배 혹은 스승과 후배나 제자의 인연을 맺는 것을 넘어 신어머니(혹은 신아버지)와 신딸(혹은 신아들)로 관계를 인식한다.

20) 서울굿 조상 망자의 넋이 만신의 몸에 싣려 전하는 말은 영실이라고 지칭하여 신의 말을 가리키는 공수와 따로 구별한다.

만신으로의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와 진배 없다 라는 관념이 담긴 것이다. 결국 무병을 극복하고 내림굿을 해서 신어머니로부터 만신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마치 바리공주가 험난한 구약여행을 마치고 부모에게 신직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리공주 신화에서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부모의 목숨을 살린다. 우위와 열위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바리공주 신화가 서술하는 관계의 역전은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역전이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즉, 화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리공주 신화의 화합을 위한 관계의 전복은 진적굿에서 《대신말명》 거리라는 의례를 통해 그대로 재현된다. 신어머니로부터 만신으로 태어난 신딸이 신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신말명의 신격으로 다시 살려냄으로 관계의 역전을 재현한다. 만신과 단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굿은 만신이 단골들의 돈을 받아서 굿을 치르지만, 진적굿은 만신이 자비로 굿을 해서 단골들을 먹이고 베풀면서 사제자와 신도의 화합을 실현한다.

바리공주 신화가 구현하는 화합의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리공주는 자신의 부모만을 살리지 않고 모든 인간을 천도하기 위해 무당이 된다. 그리고 혼자서만 신직을 받지 않고 구약 여행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과 함께 신으로 좌정한다. 진적굿에서도 이런 화합의 원리는 여실히 구현된다. 신어머니와 신아버지처럼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설정된 존재만 굿판에 재생시키지 않는다. 생전에 무업을 함께 했던 동료 만신이나 악사들도 함께 모신다. 그리고 비록 내림굿을 치르고 만신으로 입문했지만 아직 재주가 미숙하여 굿을 떼거나 청송으로 굿에 불려다니지 못하는 신딸들에게도 몸주놀리기 거리를 통해 굿판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자료9에서 이영희 만신은 대신거리에서 대신타령을 부르면서 단골들에게 ‘사재가 보이니 올해는 조심해라’ 등의 개별 공수를 주고 ‘나 이거 걸립 돌아서 우리 기자들 호가 쥐야 한다’면서 대신할머니 시루에 인정을 받았다. 내림굿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은 김태곤이 조사한 문덕순의 내림굿 진행과정 중 일부이다.

강신자(降神者)가 신명 종지 집어내기를 마치면 한 차례 춤을 추고 나서 대신상 앞에 있는 ‘열두방기떡’ 목판을 들고 곳 구경꾼들 앞에 가서 떡을 나누어 준다. 이떡을 받아 먹으면 일년 내내 재수가 좋고 병이 없다 하여 앞을 다투어 돈을 목판 위에 놓고 떡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방기떡 판다’고 한다. (중략) 춤이 끝나면 관중들은 또 앞을 다투어 강신자 앞에 돈을 놓고 점을 친다. 강신자는 공수로 신수를 보여준다.²¹⁾

내림굿을 하고 무업을 시작한다 해도 애동기자는 아직 단골이 없고 곳을 연행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기 마련이다. 이렇게 내림굿에 모인 관중들에게 대신떡을 나눠주며 영험한 공수를 내리고 점을 쳐주면서 자기의 새로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하는 셈이다. 진적곳에서도 애동 기자인 신딸에게 ‘자꾸 영한(영험한) 소리를 해야 늘지’라며 채근하며 곳을 이끌 수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준다. 또 만신 스스로도 《대신말명》 거리에서 대신떡을 나눠주거나 공수를 주고 받은 돈은 《대신말명》 거리 연행 중에 신딸과 악사는 물론이고 자리에 모인 단골을 위시하여 일손을 거드는 시봉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복돈이라며 나눠준다. 이렇듯 다양한 잔치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는 물론이고 국수를 곁들인 겨느리새참을 나누어먹고, 끈침(옷감)을 나눠주는 등 참관한 모든 진적곳에서 굿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치러짐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4. 마무리

바리공주는 대표적인 무조신으로 손꼽힌다. 특히 서울곳 권역은 바리공주 신앙이 신화와 의례 양측면에서 각별히 지켜지는 지역 중 하나이다.

21) 김태곤, 전게서, 358쪽.

그러나 그간 바리공주의 신성은 진오기굿을 위시한 망자 천도굿의 영역에서만 유독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진적굿은 굿을 의뢰하고 연행하는 주체가 모두 만신으로 구성된 신굿이다. 그래서 서울굿 중에서도 굿의 전통과 정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기존의 진적굿에 대한 몇 건의 논의는 주기적인 영력 충전이라는 진적굿의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본고에서는 서울굿 중 만신의 진적굿을 바리공주 신앙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만신은 무교(巫敎)의 사제자이며, 무교의 인연은 부모-자식의 형태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조신(巫祖神)에 대한 신앙이 각별하기 때문이다.

서울굿에서 바리공주 신화를 연행하는 굿거리는 진오기굿을 위시한 천도굿의 《말미》와 《도령돌기》이다. 반면 진적굿에서 바리공주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진적굿에서 굿의 초반부에 진적을 드리고 바로 덧붙여 크게 놀아지는 《대신말명》거리나, 굿의 후반부에 따로 추가되는 제자몸주놀리기는 모두 대신말명 등으로 지칭되는 무조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때문에 신직의 유사점을 근거로 바리공주와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다.

바리공주 신화를 구송하는 《말미》에서 명시한 바리공주 의대인 은하몽두리를 입고 방울과 부채를 무구로 사용한다는 점과, 《제당맞이》에서 <제당도령돌기>라는 특별한 거리를 구현함으로써 진적굿과 바리공주 신앙과의 외면적 접점이 드러난다. 진오기굿은 《도령돌기》를 통해 바리공주가 겪은 고난의 여정을 무조신으로 좌정한 후 망자를 천도하는 모습을 재연한다. 그러나 진적굿은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하기 이전에 부모를 살리기 위해 떠난 구약여행에 주목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연되는데 하나는 상산물고받기라는 내림굿의 핵심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당도령돌기>라는 제차와 무무(巫舞)를 통해 진적굿 연행현장에서 상징적으로 재연한다.

특히 상산에 물고를 받는 과정과 <제당도령돌기>를 통해 바리공주의 구약여행과 저승천도의 여정을 재연하고 있으며, 바리공주가 부모에게

신직을 부여받듯이 만신은 신어머니(신아버지)에게 내림굿을 받으면서 만신으로의 삶으로 거듭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죽은 신어머니(신아버지)를 위시한 악사를 《대신말명》 거리에서 무조신의 범주에서 신격으로 재생시키며, 신딸에게도 이러한 계보를 체험하게끔 도와준다. 진적굿이 열리는 굿판에서 만신은 바리공주의 신성을 빌어 선후배 만신은 물론, 악사와 기량이 미숙한 신딸과 단골들에게도 골고루 베풀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사제인 만신은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 위로는 신, 아래로는 단골이라는 신도와 소통한다. 진적굿이라는 순도 높은 신굿을 통해 바리공주 신화가 구현한 관계의 역전과 화합의 원리를 사제가 진적굿으로 재현하고, 나아가 굿판에서 신도에게 실현함으로써 바리공주 신화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입증한다. 이렇듯 《대신말명거리》는 바리공주 신화 내용인 사설이 등장하지 않지만, 굿의 과정 속에서 만신이 바리공주의 행적을 몸소 실천하면서 종교적인 대화합과 함께 바리공주의 업적을 기리면서 무조신임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서울민속대관』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신앙사전』

김현선, 『서울굿, 거리 거리 열두거리 연구』, 민속원, 2011. 137~151쪽.

국립문화재연구소 편(글: 주영하, 방인아, 최진아), 『김유감 진적굿』, 『巫·
굿과 음식1 - 김유감 진적굿·오수복 진적굿·서울새남굿』, 국립
문화재연구소, 2005. 10~67쪽.

홍태한, 『진적의 의미와 기능』,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218
~240쪽.

2. 단행본 및 논문

서울대학교규장각 서대석 해제, 『무당내력』, 민속원, 2005. 3~64쪽.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김현선, 『서울 진오기굿 -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2011, 17쪽.

김형근, 『서울 새남굿 도령돌기의 의미와 위상』, 『한국무속학』 24호, 2012.
75~106쪽.

이능화, 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창비, 2008, 1~404쪽.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추엽룡·적송지성,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 44쪽, 138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Jingeok Gut and Princess Bari

- Focused on 《Dashin Malmyong》 -

Lee, Eun Woo

Jingeok Gut is Cheonshin Gut, one of the Shin Gut self-dedicating, and periodic ceremony every, biennial or triennial year. So a intact Gut form is able to keeping, because restriction of time and money is comparatively little. This study is focus on Jingeok Gut's own special parts including 《Dashin Malmyong》. A 《Dashin Malmyong》 part is prayed for a dead senior Moodang and Dashin - the ancestry god of shamans. With previous studies about Choi Young and Seoul Gut, This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Jingeok Gut and Princess Bari on basis the costumes, dance to visulize divinity of a actual ceremony.

Key words: jingeok, princess bari, seoul gut, dashin malmyong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